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소비 심리 회복 되나?
- 중국, 선부(先富)론에서 균부(均富)론으로 선회

경영 노트

- 전산업의 새로운 경쟁자, 구글

사회 트렌드

- TGIT (Thank God, it's Thursday)
- 국보 1호 재지정 논란

저널 브리프

- 고이즈미 3차 내각과 일본 경제 향방

洗心錄

- 바깥에 마음을 빼앗기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

□ 소비 심리 회복되나?

- (현황) 2005년 10월 소비자기대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는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
 -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7.5로 전월(96.7)보다 상승
 -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83.4로 전월(81.2)보다 상승
- (원인) 거시경제지표의 호전, 증시 호조, 유가 급등세 진정 등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
 - 2005년 3/4분기 GDP가 전년동기대비 4.4% 상승하였고(잠정치), 증시도 종합주가지수 1,200포인트 선에 안착하였으며, 유가도 더 이상의 추가 상승 움직임이 없는 등 경제 여건이 안정을 되찾고 있음
- (전망) 아직까지는 소비 심리의 본격적인 회복을 논할 단계는 아님
 - 소비자기대지수는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계층만 기준치인 100을 넘어선 상태이고 그 이하 소득 계층은 100 미만에 머물러 있어 경기 개선의 기대감이 아직은 고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음
 - 특히 가계 수입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향후 소비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소비 심리의 개선을 속단하기는 힘든 상황임

□ 중국, 선부(先富)론에서 균부(均富)론으로 선회

- 중국 공산당 중앙상무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전 국토의 균형적 발전 계획을 포함한 '11차 5개년 계획(規劃)'을 중앙위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킴
 - 이는 중국이 경제 발전의 명제를 지난 1978년 이후 추진한 일부 지역 및 일부 계층의 우선적 발전 즉, '선부론'에서 전 국민 공동으로 발전의 기회를 갖는 '균부론'으로 선회하는 것을 의미함
-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지역간·계층간 소득 격차 확대, 실업 증가 등과 같은 사회 불안 요인 해소가 중국이 경제 발전 방향을 선부론에서 균부론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임
 - 더욱이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진전된 동부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임금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륙 지역 등에 대한 개발 필요성도 증대됨

□ 전산업의 새로운 경쟁자, 구글

-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Google)이 기존 산업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
 - 최근 구글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지도 검색, 위성사진, 무선인터넷, 전자도서, 쇼핑 정보 등 사업 영역을 무한 확장하고 있음
 - 월마트는 자사의 성공 요인인 '최저 가격' 전략이 구글의 가격비교 검색 기능으로 인해 효과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 구글을 위협 상대로 규정함
 - 또한 구글의 광섬유망과 초고속인터넷 제공업체에 대한 투자 등은 통신업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신문과 잡지 등 미디어업계도 갈수록 커져가는 구글의 뉴스와 광고의 영향력에 의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으로 인해 동네 자영 제과점이 문을 닫는 현상이 나타남
 -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파리바게뜨와 제휴를 맺으면서 제과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업체로 등장하였음
 - SK텔레콤은 멤버십 제휴에서 할인 가격의 30%를 보전하고 있어, 이로 인해 자영 제과점들이 고사할 위기에 처함
 - 이러한 현상은 SK텔레콤과 제휴를 맺은 T.G.I 프라이데이(외식업체), CGV(영화관) 등의 업체들이 속한 각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산업 경계를 초월하여 경쟁 영역을 파괴하는 업체의 등장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와 적절한 대응 전략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함
 - 산업의 컨버전스화(융합화) 추세는 구글과 SK텔레콤과 같은 업역 파괴자의 등장 가능성을 높임
 -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 환경의 변화, 주변 시장의 흐름 등 다양한 측면의 경영 환경을 분석하여 위기의 신호를 감지해야 함
 - 경쟁자의 범위를 확장, 여러 분야의 잠재적 경쟁자를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임
 - 자사의 분야와 전혀 다른 분야에 속한 업체와의 협력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TGIT (Thank God, it's Thursday)

- 미국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이 일주일에 4일 공부하고 3일 쉬는 형태로 바뀌면서 TGIT라는 신조어가 생김
 -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미국의 많은 대학생들은 금요일 강의를 기피하고 있어, 사실상 목요일에 주말이 시작되고 있다고 함
 - 가령 치코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경우 금요일 강의는 총 890개로 화요일의 2,500개에 비하면 약 1/3 수준이며, 인디애나大와 애리조나주립大의 경우도 금요일 강의는 평일의 40~50% 수준임
 - 예전에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이에요. (TGIF: Thank God, it's Friday)”라고 외치며 주말의 해방감을 표현했지만, 이제는 목요일(Thursday)을 금요일 대신 집어넣어 ‘TGIT’라고 할 정도임
- 이제 미국 대학생들에게 금요일은 강의실 밖에서 보내는 날이 된 셈임
 - 거대한 캠퍼스를 일주일에 4일만 활용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도 있지만, 학생들은 ‘공부와 놀기, 둘 다 열심히 하겠다’는 분위기라는 것임

□ 국보 1호 재지정 논란

- 최근 국보 1호 재지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음
 -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2004년 9월 취임 후부터 국보 1호 재지정 방안에 남다른 관심을 표명하며 이를 비공식적으로 추진해온 상황에서 감사원이 문화재청에 이 같은 방안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임
 - 찬성 입장은 ‘송례문(남대문, 조선 14세기)은 국보 1호로 약하다. 국보 1호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 문화재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
 - 반대 입장은 “국보의 번호는 중요도와 가치의 순서가 아니라 단순히 지정 순서대로 붙인 번호에 불과하다. 문화재란 본디 개성적인 특성에 우열을 매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의견
- 국보 1호를 새로 지정할 경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문화재는 국보 70호 훈민정음(해례본), 국보 24호 석굴암, 국보 32호 팔만대장경 등임
 - 국보 1호를 바꿀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드는 비용 문제임. 역사 교과서는 물론 관련 서적, 해외 홍보물, 영상물 등을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함
 - 또한 문화재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훗날 더 중요한 문화재가 나타나면 국보 1호를 다시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

□ 고이즈미 3차 내각과 일본 경제 향방*

- (고이즈미 3차 내각 발족과 불안한 일본경제) 2005년 9월 11일 총선에서 승리한 고이즈미 일본 수상은 강경 극우파 중심의 제3차 내각을 발족시켰으나 일본 경제의 앞날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 (日 경제 각료들은 경제 향방에 대해 낙관적) 일본 경제 각료들은 경제 성장률 제고와 주가 상승 등을 들어 2005년이 1990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무려 14년 동안 지속돼 온 장기 침체 국면을 마무리하고 경기 회복 원년이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
 - (국제금융시장은 신중론)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소비 심리 약세 지속,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정리 미흡, 우정국 민영화 추진 지연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장기화되기 어렵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음
 - 미약한 소비심리: 일본의 GDP 기여도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심리가 여전히 미약함
 -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정리 미흡: 최근처럼 금융이 실물경제를 선도하는 시대에서 일본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정리가 미흡하여 금융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기 어려움
 - 우정국 민영화 추진 지연: 일본의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갖게 했던 우정국의 민영화 문제 또한 강경 극우파로 이루어진 고이즈미 3차 내각 하에서는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주변국들과의 충돌 심화: 글로벌 시대에는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나 신사참배 등으로 한국, 중국 등 일본 경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 (일본경제 전망) 결국 느린 금융 기반 재건 속도, 우경화로 인한 개혁 지연 가능성 및 주변국들과의 충돌 가능성 등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가시화될 경우 이는 곧 일본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정체될 가능성이 큼

* 이 글은 『한경비즈니스』(2005.11.14)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바깥에 마음을 빼앗기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

장자(BC 369~289)는 노자와 함께 도가의 중심 사상가이다. 장자는 비실천적, 도피적, 방관자적 사상가라는 혹평 아래 경원되기도 하지만, 또한 바로 그 점, 즉 얽은 지혜, 눈 앞의 욕망, 입신 출세 따위를 조소하는 것 때문에 숭앙되기도 한다. 특히 세상을 보는 색다른 시각, 사물의 이면을 통찰하는 커다란 지혜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적지 않다. 다음은 『장자(莊子)』 山木 편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바깥에 마음을 빼앗기면 자기를 돌보지 못한다는 교훈을 우화적으로 설명해 준다.

하루는 장자가 사냥을 즐기고 있노라니, 남쪽에서 이상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다. 날개는 일곱 자나 되고, 눈은 한 치나 되는 큰 놈이었다. 까치는 장자의 이마를 스치고 날아가서 가까운 밤나무 숲에 앉았다. 그런데 그 날아가는 품과 앉는 모양새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이상한 새다. 저렇게 큰 날개를 가지고도 잘 날지를 못하고, 저렇게 큰 눈을 가지고도 앞을 잘 보지 못하다니”

장자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밤나무 숲으로 들어가 까치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그런데 자세히 바라보니 그 까치의 행동이 어색한 것은 나무에 붙어있는 버마제비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까치는 버마제비를 노리느라 장자가 가까이 다가와 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

장자는 이번에는 버마제비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버마제비는 그 놈대로 까치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것도 까마득히 모른 채 나무 그늘에서 울고 있는 매미를 노리고 있었다. 물론 매미도 버마제비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버마제비도 까치도 먹이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자기 몸이 위험에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장자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먹이를 노리는 것이 또 먹이가 된단 말인가. 이익을 쫓는 자는 해를 부른다. 위험하기 짝이 없구나!”

장자는 활과 화살을 버리고 황급히 밤나무 숲을 빠져 나왔다. 그러나 뒤쫓아온 밤나무 숲지기에게 붙잡혀 도둑이라고 실컷 욕설을 들었다. 까치를 노리던 장자 또한 숲지기의 표적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 통찰력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

- 조나단 스위프트(1667-1745): 英 작가 및 성직자, ‘걸리버여행기’의 저자